기 초 문 법 총 정 리

	음운 / 음운 및 음절		형태소	단어	어절	구/절	문장	문단	글
의미	뜻을 구별하는 최소단위	발음의 최소 단위	뜻을 가진 최소 단위	자립하여 쓸 수 있는 최소 단위 - 단어 수 = 품사 수	문장성분.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문법 단위. 띄어쓰기 단위	▸구 : 둘 또는 그 이상의 어절이 어울려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함. 주술관계를 갖지 못함 ▸절 :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하나의 의미단위를 이룸. 주술관계를 갖음.	하나의 완결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형식	글에서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짤막한 단위	
내용	▣음운 ㄱ. 음소 : 자음 + 모음(분절음운) ㄴ. 운소 : 장단. 고저 등(비분절음운) 예 말 / 발 ㄱ. 최소대립쌍 : ㅁ/ㅂ ㄴ. 최소대립어 : 말/발 ■ 자음(3중체계) ㄱ. 예사소리 : ㄱㄷㅂㅅㅈ ㄴ. 된소리 : ㄲㄸㅃㅆㅉ ㄷ. 거세소리 : ㅋㅌㅍㅊ ㄹ. 변이음 : 음은 환경에 따라 달라짐 예 고기. 바보 ㅁ. 이형태 : 기능 형태에 따라 달라짐 예 소희를/민상을 ■ 모음 ㄱ. 단모음 ㄴ. 이중모음	■ 국어의 음절 구조:음절수=모음수 1.모음 : 아 2.모+자 : 영 3.자+모 : 가 4.자+모+자 : 문 ■ 음절의 끝소리 : ㄱㄴㄷㄹㅁㅂㅇ 예 꽃[꼳], 맞(맏) → 교체, 중화 **★이중모음=합체가능** 이중 모음(11개) :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 바뀜 or 바뀌지 않음) : ㅑ,ㅒ, ㅕ, ㅖ,ㅘ, ㅙ, ㅛ,ㅝ, ㅞ, ㅠ, ㅢ ※ 반모음은 단모음과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룬다. [10] _____ 등은 'y'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고 'ㅘ, ㅟ, ㅙ, ㅞ' 등은 'w'가 결합한 이중 모음이다.	**자립 형태소** : 혼자 쓰일 수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의존 형태소** : 다른 말에 기대어 쓰임 조사 접사 용언의 어간 어미 **실질 형태소** : 구체적인 상태나 대상을 나타내는 실질적 의미를 지님 자립형태소 + 용언의 어간 **형식 형태소** : 문법적 의미만 지님 의존형태소 - 용언의 어간 예 철수가 똥을 싼다 → 철수/가/똥/을/싸/ㄴ/다 참고] 연음/절음 ㄱ. 형식형태소 : 옷이[오시] ㄴ. 실질형태소 : 옷 안[오단]	**형태 / 기능 / 의미** 불변어 : 체언(주체기능) : 명사 / 대명사 / 수사 불변어 : 수식언(수식기능) : 관형사(어펜) / 부사(어펜계) 불변어 : 독립언(독립기능) : 감탄사 불변어 : 관계언(관계기능) : 조사 가변어 : 관계언(관계기능) : (서술격조사 '이다') 가변어 : 용언(활용기능) : 동사 / 형용사 ▣ 명사 ■고유명사 / 보통명사 ■자립명사 / 의존명사 ▣ 동사와 형용사 구별 ㄱ. 동사 :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가능 ㄴ. 형용사 : 현재형. 명령형. 청유형 불가능 예 건강하세요.(×) ▣ 관계언 ㄱ. 격조사(주.서.목.보.관.부.호) (-이.가/이다/을.를/이.가/의/에.에게.으로/아.야) ㄴ. 보조사(-은/는/도/만/부터/까지/조차/까지) ㄷ. 접속조사(-와.과/랑/하고) ■ 수사와 관형사 ㄱ. 수사 : 사과 하나가 있다. ㄴ. 관형사 : 사과 한 개가 있다. ▣ 지시대명사와 지시관형사 ㄱ. 지시대명사 : 그는 학생이 아니다. ㄴ. 지시관형사 : 그 학생을 보아라 ★ 관형사와 감탄사는 조사 붙을 수 없음.	**주성분 문장의 골격** 서술어 : ▸성립 : ①동사 ②형용사 ③체언+서술격조사(이다) / 어찌한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주어 : ▸성립 : ①체언이나 체언상당어+주격조사(이/가. 께서.에서 ②체언+보조사 목적어 : ▸성립 : ①체언이나 체언 상당어 + 목적격조사(을/를) ②체언 + 보조사 ★ 목적격 조사를 붙여 목적어로 표현 →무조건 목적격조사가 있으면 목적어다 (학교문법) 보어 : ▸성립 : ①체언+보격조사(이/가-주격조사와 형태가 같음)+서술어 '되다. 아니다' **부속성분 수식의 골격** 관형어 :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성분 부사어 : ▸성립 : ①관형사 ②체언+관형격조사(의)③용언의전성어미(-는.(으)ㄴ.(으)ㄹ.던) * 관형사의 중의성 해소방법 : ①성표사용 ②어순 바꾸기 ③풀어쓰기 **독립성분** 독립어 : ▸개념 :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성분 ▸성립 : ① 감탄사 ②체언+호격조사(이.야.이여) ③접속부사(성분-독립어. 품사-부사) ④제시어(성분-독립어. 품사-명사) ※돈.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는가?'에서 '돈' 따위.	**문장** 홑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이루어진 문장 겹문장 :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는 것 (하나 이상의 절을 가짐) 안 은 문 장 (안긴 문장) : 명사절 / 서술절 / 관형절 / 부사절 / 인용절 이 어 진 문장 : 대등적~ / 종속적~ / -와과 명사절 : 우리는 절수가 옷을 입기를 원한다. 서술절 : 토끼는 앞발이 짧다. 관형절 : 이것은 절수가 입은 옷이다. 부사절 : 절수는 소리 없이 다가온다. 인용절 : 절수는 어기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대등적 : 변태가 총고, 우리는 곳었다. 종속적 : 변태가 가서, 우리는 행복했다. ~와과 : 변태와 우리는 행복했다. **<표문법을 팁>** **걸받침 'ㅎ'은 이알과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해야 하므로, '닿' 은 [닥]으로, '많다' 는 [만타]로 발음** **다만, 용언의 어간 받침에 쓰이는 'ㅎ'은 뒤에 'ㄱ'이 이어질 때 [ㅋ]로 발음한다. 따라서 '많게' 는 [만케]로 발음 또 걸받침 'ㄶ'은 어알이나 자음 앞에서 [ㄴ]로 발음해야 하므로, '놓게' 는 [노케]로 발음**	**문단**	

단어(용언 보충)

어간 : 활용 시 변하지 않는 부분

어말어미	종결어미		평서(-다), 의문(-니?), 명령(-라), 청유(-자), 감탄형(-구나)
	비종결어미	연결어미	대등(-고, 며 등) 종속(-어서, 니까, 든지) 보조적(-아/어,게,지,고)
		전성어미	명사형 -ㅁ, 기
			관형사형 -ㄴ, 는, ㄹ
			부사형 -게, 도록
선어말어미		높임	-(으)시-
		시제	-았/었-, -며-, -ㄴ/는-, -겠-(미래추측)
		공손	-옵/사옵-

어미 : 활용 시 변하는 부분

◉ 불규칙 활용

어간이 바뀌는 불규칙	ㅅ 불규칙	ㅅ탈락	예 이어
	ㄷ 불규칙	ㄷ→ㄹ	예 걸어
	ㅂ 불규칙	ㅂ→오/우	예 도와
	르 불규칙	'으' 탈락 'ㄹ' 첨가	예 달라
	우 불규칙	'ㅜ' 탈락	예 퍼
어미가 바뀌는 불규칙	여 불규칙	아→여	예 하여
	러 불규칙	어→러	예 푸르러
	거라 불규칙	-아라-→-거라	예 가거라
	너라 불규칙	-어라-→-너라	예 오너라
어간/어미 모두 바뀌는 불규칙	※ 불규칙		예 파랗+아 → 파래

 # 수사와 관형사

1. 수사는 조사가 붙을 수 있으나 관형사는 붙을 수 없다.
   예 수 사 - 사람 하나가 있다. 천의 열굴
   관형사 - 한 사람. 첫 사람
2. 그러나 수 개념의 말에 조사가 없어도 문장의 주기능을 가지면 수사다. 예 장비 하나 없이 등산 가니? (하나도. 주어)
   너에게도 하나 주라? (하나를. 목적어)
   그것은 하나 아닌 둘이다.(하나가. 보어)
3. 차례를 나타내는 말이 사람을 지칭하면 명사다.
   예 첫째는 공무원이고, 둘째는 의사이다.

<품사의 중의>

#'대로. 만큼. 뿐'

┌관형어 + '대로. 만큼. 뿐' ⇒ (의존) 명사 예 아는 대로
└체언 + '대로. 만큼. 뿐' ⇒ 조사 예 너대로

#'듯'

1) 의존 명사 : 어미 아래에서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하다는 뜻으로 쓰일 때 예 보는 듯 마는 듯
2) 부사 : '듯이'의 준말로 예 튈 듯이 기뻤다.
3) 어미. 어간 밑에서 '거의 같게'의 뜻으로 예 바늘 가는데 실 가듯. 술 먹듯
4) 형용사 : '듯하다'의 준말로 예 이건 좀 클 듯(하다).

'다르다'

① 서술어로 쓰이면 형용사. 예 용건이 철수와 다르다.(不同. 異)
② 서술성이 없으면 관형사. 예 다른 책.(他. 以外)

<표문법을 팁>

'경례를' 은 [경녜를]으로, '물을' 은 [무를]로 발음해야 한다. 그런데 받침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연음) 에를 들면 '꽃 아래' 는 [꼬다래]로 발음해야 하는 것이다.

'외' 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외' 는 [에]로, 조사 '의' 는 [에]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따라서 '혜의' 는 [혜의]나 [혜에] 모두 올바른 발음이다. '혜. 례' 이외의 '례' 는 [례]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므로 '사계' 는 [사계]로 에나 [사게]로도 발음

다만, 예외적으로 '례다' 에서의 'ㅖ' 은 자음 앞에서 [ㅔ]으로 발음한다. 따라서 '례다' 는 [례:ㄷㅏ] 또 발음, 걸받침 'ㄺ'은 어알이나 자음 앞에서 [ㄹ]으로 발음해야 하므로,'읊고' 는 [읍꼬]로 발음

★중세국어 문법 1) 음운

자음	• 된소리 계열의 등장 • 파찰음 'ㅈ, ㅊ'이 구개음이 아닌 치음으로 발음 • 'ㅸ, ㆄ' 등과 같은 어두 자음군 존재
모음	• 모음 조화가 비교적 잘 지켜짐. • 삼중 모음(ㅢ, ㅙ, ㅚ, ㅞ)이 존재 • 7개의 단모음(ㅣ, ㅡ, ㅜ, ㅓ, ·, ㅏ, ㅗ)과 다양한 이중 모음(·ㅣ, ㅐ, ㅚ, ㅟ, ㅔ, ㅘ, ㅝ, ㅛ, ㅠ, ㅑ, ㅕ, ㅒ, ㅖ, ㅙ, ㅞ 등)이 존재

2) 표기 : - 성조와 방점의 소멸: 16세기 후반부터 동요하던 성조가 사라짐에 따라 점차 방점 표기가 없어짐.

연철표기	중성에서 발음되는 자음종류가 8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로 받침에도 8개의 자음표기
이어적기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므로 원칙적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받침에 있는 종성을 다음 자의 초성으로 내려서 씀.
특이쓰기	끄이쓰기를 하지 않음.예 이런전츠로어린百姓이니르고저홇배
합용	음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성조가 방점으로 표기됨. 평성 (무점), 거성 (한 점), 상성 (두 점)이 존재함.

3) 문법

조사	• 주격 조사 '이'가 환경에 따라 체언 뒤에서 '이, ㅣ, Ø(zero)'의 세 가지 형태로 실현됨. '이'는 자음 뒤, 'ㅣ'는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을 제외한 모음 뒤, 'Ø'는 'ㅣ'나 반모음 'ㅣ'로 끝나는 이중 모음 뒤에서 나타남. 일반적으로 '가'가 쓰이지 않았음. 예 말씀미(말씀+이), 부톄(부텨+ㅣ), 불휘(불휘+Ø) • 목적격 조사는 '을/를, 울/룰, ㄹ'로 실현됨. 예 바룰 (바ㅎ+을), 나룰 (나+룰), 드틀 (뜯+을), 너를 (너+를), 머릴 (머리+ㄹ) • 관형격 조사는 '이/의' 계열과 'ㅅ' 계열이 존재함. - 이/의: 평칭의 유정 명사 예 사스이(사슴+이) 갗, 거부븨(거붑+의) 털 - ㅅ: 높임의 유정 명사 예 부텻(부텨+ㅅ) 모미, 무경 명사 예 나못(나모+ㅅ) 불휘
의문문 표현	• 의문사가 있는 설명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고/오'와 '-오'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예 이 엇뎬 사ᄅᆞᆷ고 / 太子ㅣ 이게 어듸 잇느뇨? • 의문사가 없는 판정 의문문은 의문 보조사 '가/아'와 '- 아' 계열의 의문형 종결 어미가 쓰임. 예 이 ᄯᅳ리 녀희 ᄌᆞᆼ가 / 홇ᄉᆞᆫ 우희 ᄯᅩ 다ᄅᆞᆫ 上座ㅣ 잇느닛잇가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어미(-ᄉᆞᆯ- / -ᄌᆞᆯ- / -ᄉᆞᆯ-)가 존재 예 나도 이제 녀희 스승니를 보ᄫᅡᆯ고져 ᄒᆞ노니('스승님'을 높이기 위해 모음 뒤에 '- ᄉᆞᆯ-' 을 사용함.), 세존ᄭᅴ 안부 묻ᄌᆞᆯ고('세존'을 높이기 위해 'ㄷ' 받침 뒤에 '-ᄌᆞᆯ-'을 사용함.)

4) 어휘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계이 계속되는데 현대에 사라진 고유어가 많이 쓰임. 예퇴-산 (山), ᄀᆞᄅᆞᆷ-강(江), 즈믄-쳔 (千)
차용어	• 한자어의 귀화 예 가난[艱難] • 몽골어의 유입 예 보라[狄鞋]ᄆᆡ, 송골[海靑]ᄆᆡ

★근대국어 1) 음운

자음	• 'ㅿ'이 16세기부터 약화되다가 소실됨. 예 ᄆᆞᅀᆞᆷ > 마ᅀᆞᆷ > 마음, 어버ㅿ이 > 어버이 • 'ㅇ'이 종성에서만 실현되고 글꼴도 'ㅇ'으로 변화 예 ᄒᆞᆫ이다 > ᄒᆞᆫ이다, 부어 > 붕어 • 'ㅂ'계, 'ㅸ'계 어두 자음군이 사라지면서 된소리로 바뀜. 예 ᄇᆡ > 세(혜), ᄯᅳᆯ > 뜰(뜻) • 거센소리화와 된소리화가 나타남. 예 고키리 > 코키리 (코끼리), 곶 > 꽃 (꽃) • 두음 법칙에 변화가 나타나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어두의 'ㄴ'이 탈락되기 시작 예 님금 > 임금 • 'ㅈ, ㅊ'이 치음에서 구개음으로 변화됨. • 17~18세기에 구개음화가 점진적으로 나타남. 예 티다 > 치다
모음	• 18세기에는 8개의 단모음 체계 (ㅣ, ㅡ, ㅜ, ㅓ, ㅗ, ㅏ, ㅚ, ㅐ) • 'ㆍ'가 16세기부터 둘째 음절 이하에서 주로 'ㅡ'로 바뀌고, 18세기 무렵 첫째 음절에서 주로 'ㅏ'로 변화 예 ᄀᆞᄅᆞ치다 > ᄀᆞ르치다 > 가르치다 • 이중 모음이던 'ㅐ'와 'ㅔ'가 18~19세기에 단모음화 • 입술소리 아래 쓰인 평순 모음 'ㅡ'가 원순 모음 'ㅜ'로 변화 예 믈 > 물, 블 > 불, 븕다 > 붉다

2) 표기

종성 표기	종성 'ㄷ'과 'ㅅ'의 구별이 어려워지면서 'ㄷ'을 'ㅅ'으로 적는 경향이 나타나 받침에 7개의 자음이 표기됨. 예 잇고져 (읻고자), 빗어 (빋어)
거듭 적기	중세의 이어 적기 방식이 현대의 끊어 적기 방식으로 바뀌어 가는 과도기적 표기가 나타남. 예 니믈 (이어 적기), 님믈 (거듭 적기), 남믈 (끊어 적기)

3) 문법

주격 조사	'가'가 등장하여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사용됨. 예 비가 (메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ᄉᆞᆯ- / -ᄌᆞᆯ- / -ᄉᆞᆯ-'이 객체 높임에 쓰이지 않게 됨.
불규칙 활용	'ㅿ'이 소실되면서 'ㅅ' 불규칙 활용으로 변함. 예 지ㅿ > 지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 앗 - / - 엇 -'이 확립됨.

4) 어휘

차용어	서양문물이나 사상이 중국을 통해 들어오면서 관련 한자어가 들어옴. 예천리경(千里鏡),자명종(自鳴鐘),천주교(天主敎)	어휘의 의미변화	의미가 바뀌어 현대 국어까지 유지됨. 예 어엿브다 (가련하다 [憐] → 예쁘다 [美])

○ 교체 : 한 음운이 수적인 변화 없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 음운변동 현상 - 반드시 수능시험에 출제됨. 완전히 암기할 것.** ❶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자음동화)/ ㅣ 모음역행동화(아비→애비)가 일어나면 그 결과 인정한 음운의 성격과 비슷해지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화'라고 한다.2017년 (6월모평출제)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 끝에 올 수 없는 자음이 'ㄱ. ㄷ. ㅂ' 중 하나로 바뀌는 현상 (예) 밖→[박] .바깥→[바깓].일→[일]	**비음화**	'ㄱ. ㄷ. ㅂ'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국민→[궁민] 듣는→[든는] 밥만→[밤만]
구개음화	형태소의 끝소리인 'ㄷ, ㅌ'이 'ㅣ'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와 만날 때 'ㅈ, ㅊ'으로 바뀌는 현상 예) 굳이→[구지] 같이→[가치]	**유음화**	'ㄹ'에 인접한 'ㄴ'이 'ㄹ'로 바뀌는 현상 예) 칼날→[칼랄] 천리→[철리]
된소리되기	안울림소리 뒤에 안울림 예사소리가 뒤소리로 발음되는 현상 예) [ㄱ, ㄷ, ㅂ] + 'ㄱ, ㄷ, ㅂ, ㅅ, ㅈ' → [ㄲ, ㄸ, ㅃ, ㅆ, ㅉ]예 압+교→[압꾜]. 앞+걸→[압껄]		

○ 첨가 :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음운 현상: **모음조개(반모음조개): 뫼어 →뫼여**

'ㄴ'첨가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ㅣ'나 반모음 'y'로 시작할 때 'ㄴ'이 첨가되는 현상	예) 논일→[논닐]. 옷 입다→[온닙따]. 콩엿→[콩녇]
사잇소리현상	두 개의 형태소 또는 단어가 합쳐져서 합성어가 될 때, 앞 단어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이고 뒤 단어의 첫소리가 예사소리이면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변하는 현상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초+불→촛불[초뿔] ·배+사공→뱃사공[배싸공] ·논+둑→논둑[논뚝]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뒷말이 'ㅁ, ㄴ'으로 시작될 때,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첨가되는 경우	·이+몸→잇몸[인몸] ·코+날→콧날[콘날]
	앞말의 음운과 상관없이 뒷말이 모음 'ㅣ'나 반모음 [j]로 시작될 때, 'ㄴ'이 하나 혹은 둘 첨가되는 경우	·집안+일→집안일[지반닐] ·물+약→물약[물냑→물략] ·나무+잎→나뭇잎[나문닙]

○ 탈락 : 한 음운이 단순히 없어지는 음운 현상

자음군 단순화	겹받침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 예) 닭→[닥] 넓고→[널꼬]	**'ㅎ' 탈락**	어간 말의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문법 형태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넣어→[너어] 좋은→[조은]
'ㄹ' 탈락	'ㄹ'이 'ㄴ. ㄷ. ㅅ. ㅈ' 등의 자음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알+는→[아는] 달+달+이→[다달이]	**'으' 탈락**	용언 어간 말의 '—'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하는 현상 예) 크어→[커] 쓰어서→[써서]

○ 축약 : 인접한 두 음운이 합쳐져서 제3의 음운으로 바뀌는 음운 현상

거센소리되기(자음축약)	'ㅎ'과 'ㄱ. ㄷ. ㅂ. ㅈ'이 만나 'ㅋ. ㅌ. ㅍ. ㅊ'이 되는 현상 예) 잡히다→[자피다]. 좋다→[조타]. 낳고→[나코]. 놓지→[노치]	**모음축약**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 예) ·ㅗ+ㅏ→ㅘ: 오+아서→와서 ·ㅜ+ㅓ→ㅝ: 두+었다→뒀다